

디지털산단으로 대변신 성공…구로공단의 교훈



1970년대 봉재·가발공장이 주류를 이뤘던 구로공단(사진 왼쪽)과 현재 아파트형 공장과 IT빌딩이 빼곡히 들어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전경.

봉제·가발 공장서 IT산업 심장 됐다

기업 1만개·고용인원 12만명…최첨단 산단으로 재탄생

'성장 한계' 광주 본촌·하남산단도 새로운 도약 준비 해야

19일 오전 8시 서울 구로디지털역. 빼곡히 전동차 안에 들어차있던 20~30대 '넥타이부대'들이 전동차가 멈추자 썰물처럼 역 구내를 빠져나가 빌딩 숲으로 사라졌다. 이들 'IT족'이 밭길을 끊기는 곳은 점단 아파트형 공장과 IT빌딩이 즐비한 '구로디지털산업단지'다.

국내 제1호 공단으로 60~70년대 한국 수출 역군이었던 여공(女工) 중심의 '구로공단'은 없었다. 제품을 소리 요란했던 가발·봉제공장을 최첨단 아파트형 공장과 IT빌딩이 대신하고 있다. 60년대 입주업체는 8곳으로 원구·직물·고무풍선을 만드는 공장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디자인·콘텐츠산업 등 IT업체들이 입주 기업의 85%에 달한다.

올 현재 입주업체만도 1만개를 넘어서고 단지 내 고용인원도 12만명을 웃돈다.

경쟁력은 IT기업 유치의 밀거루였다.

구로공단이 상전벽해한 배경에는 정부·기업간 상생이 원동력이었다. 정부는 전폭적인 규제완화, 세제혜택 정책으로 입주비용이 저렴한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턴다. 건설업체들은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땅값이싼 구로지역 개발에 앞다퉈 참여했다.

개발 당시 구로단지의 부지가는 m당 200만원대. 강남의 대체란로가 m 10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강남지역 사무실 임대료면 자가공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같은 가격

본촌산단에는 현재 120여개 업체, 2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지만, 영세한 음식료 산업과 목재, 기계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구조 재편 등 제2의 도약을 위한 동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광주의 경쟁적인 산단인 하남산단도 연간 생산액 8조원, 수출 28억달러를 기록하고 있지만, 산업집적 효과와 연관기업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강점 때문에 디지털산업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입주한 900여개 업체들 대부분이 소규모 기계공업과 플라스틱 성형업체들과 같은 2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구로공단의 성공모델을 거울삼아 광주 지역 산단지도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光銀, 지방은 최초 구로금융센터지점 개점

광주은행이 19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지방은행 최초로 '구로금융센터지점'을 개점했다. 이팔성 우리금융그룹 회장, 박영선 국회의원,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사진>

구로금융센터지점은 구로디지털 1단지 중심 사거리에 있는 태평양물산빌딩 2층에 입주, 서울지역 산단의 금융지원을 맡게 된다.

광주은행은 구로금융센터지점 개점에 따라 전국 최초로 5개의 영업점을 갖춘 지방은

행이 됐다. 또 단지 내에 은행점포 수만 27개에 달하는 등 모두 32개의 금융기관과 어깨를 나란히하게 된다.

특히 구로금융센터지점은 개점 첫날 수신 1400여원, 예신 250억원을 달성, 영업 다각화·수익 극대화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다.

광주은행은 7월 현재 서울지역 4개 점포만으로도 수신이 3조400억원, 예신이 2조 3700억원을 올리고 있다.

송기진 행장은 "매년 수백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새로 둥지를 트는 구로에서 기



고 다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현대기아차, 유럽서 도요타 추월

상반기 32만1875대 판매…1만 1000여대 앞서

현대·기아차가 올해 상반기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처음으로 도요타를 능가하는 판매 실적을 올렸다.

19일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1~6월 유럽 시장에서 현대 차 18만6001대(시장점유율 2.6%), 기아차 13만5874대(〃 1.9%) 등 총 32만1875대(4.5%)를 판매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 기아차는 12.4% 증가한 것이다.

반면 도요타는 올 상반기에 유럽 전역에서 31만253대를 팔아 작년 동기 대비 실적이 12.6% 감소하며 반기 기준으로 현대·기아차에 뒤졌다.

올 상반기 중 유럽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폴크스바겐으로, 152만5560대(20.9%)를 기록했다.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엥(13.9%)과 르노(10.6%)가 2,3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취업자 2400만명 돌파

통계청 작성이라 최대

업자 증가는 경기 회복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3년여만에 400만명 선을 회복했다. 올 2분기 제조업 취업자는 401만5000명으로 2007년 2분기의 402만7000명이 아래 가장 많았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는 올 2분기에 1840만2000명으로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였다.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보험, 사업·개인·공공서비스가 취업 시장 활성화를 이끈 셈이다.

특히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올 2분기 취업자 증가 폭 또한 통계 작성 이래 최대라는 점이 고무적이다. 올 2분기에는 취업자가 43만3천명이나 늘었다. 취업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실업자 수는 7년여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다.



기록 금호전략경영본부 시장

금호건설 새 대표이사 내정

기록(61·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이 금호산업 건설부문 새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정부는 복권 구매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를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당첨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로또 복권의 경우 당첨금 소멸시효가 180일에 불과해 매주 당첨금 중 7억~8억원 정도가 찾지 않고 남는 상황"이라면서 "복권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줘서 복권 구매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복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DYNASTY COUNTRY CLUB

동양·양자·동양·양자·동양·양자·동양·양자

다이나스티CC

